



안성, 진천 돼지 구제역 발생

- 총 1만여두 돼지 살처분, 사슴도 방역 만전 기해야 -

지난 2000년 소 구제역 파동에 이어 충북 진천과 경기도 안성에서 이달 초 돼지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업계를 강타한 한편 사슴업계에도 불똥이 튀기지 않을까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.

이번 사태로 5월 10일 현재 진천에서는 총 1천3백여마리의 돼지를, 안성에서는 돼지 8천7백여마리와 소 45마리 등 총 1만2천여두 이상의 가축을 살처분해 매립했다. 또한 구제역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3km내의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조치를 실시했다.

구제역이란 소, 돼지, 양, 염소, 사슴 및 야생반추류 등과 같이 발굽이 들로 갈라진 우제류동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입, 혀,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며,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되는 급성가축전염병이다.

돼지 구제역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그 피해 또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. 방송을 접한 소비자들의 돼지고기 기피현상으로 구제역이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비가 현저히 떨어져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해결책에 고심하고 있다.

유통업체의 돼지고기 판매 담당자들은

“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겹쳐 큰 기대를 걸었으나 구제역이라는 복병을 만나고전하고 있다”며 “구제역 파문 확산으로 돼지고기의 수요와 공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육 공급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”이라고 말했다.

한편 사슴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다행스럽게도 구제역 발생상황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.

본회 사무처에서는 돼지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농림부 및 수의과학검역원 등과의 연락을 통해 발생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는 한편 사슴농장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에 대해 질의했다.

이에 대해 농림부 가축위생과에서는 “현재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사슴농장은 없다”며 “자가 방역 등을 통해 구제역이 사슴농장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”이라며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.

한편 본회에서는 구제역과 관련해 전국의 임원·지회장에게 긴급 공문을 발송, 구제역 방역을 위한 지회업무를 안내했다.

다음은 지회에 발송한 공문 내용. **한국양육**



구제역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합시다!

□ 경기 안성, 충북 진천 구제역 재발

- 지난 3일과 4일 경기도 안성(삼죽면 울곡리 울곡농장) 및 충북 진천(이월면 사곡리 이춘복 농장)의 양돈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.

- 6일 현재 추가발생 신고는 없으며, 4일 신고되었던 경기도 광명시 젓소 구제역 의심축은 음성으로 판명됨.

- 사슴에서의 의심증상 등은 신고된바 없으나, 구제역 확산 여부에 따라 사슴에도 감염 위험이 높으며, 특히 절각철을 맞아 소비위축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모든 농가가 합심하여 확산방지 및 조기방역을 이루어야 함.

□ 축사소독 철저, 농장출입 통제 실시해야

- 사슴 사육장 전체에 대해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.

- 축사 천장과 벽, 바닥을 소독제로 완전히 적셔 소독하고, 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축사 또는 운동장 전체에 충분한량의 소독약 살포.

- 농장 입구와 축사입구에 소독조와 차량 소독조를 설치하되 발이나 차량 바퀴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.

-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반드시 소독 후 출입.

□ 사슴거래 잠정 중단 바람직

- 구제역 방역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사슴거래 잠정중단.

- 사슴농장 견학 행사, 농장방문, 다수 농가 회합 등도 중단 바람직.

- 절각을 실시하는 경우 가급적 자가절각으로 외부인 출입 억제.

□ 방역당국의 업무에 적극 협조, 호응

- 정부 일제 소독의 날 확대운영, 매주 수요일 실시.

- 6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연장.

- 도로 방역, 공동방역활동 등에 적극 동참.

□ 본회 대책

- 구제역 발생지역인 안성, 진천에 각각 임시 대책위 구성.(연락책임자 지정)

- 추가발생 및 확산, 사슴에서의 발생여부 예의 주시, 대책 마련.

- 이동제한(실시중), 백신접종, 수매도축 등 예상 가능한 모든 상황 대처준비.

- 회보 및 안내문을 통해 구제역 진행상황 수시 전달, 정보제공.

□ 지회단위 활동 대책

- 소속 회원농가 및 인근지역 농가 대상 감염증상축 발생 여부 수시 점검.

- 소독에 필요한 약품, 장비 등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지회장 책임하 점검.

- 외부로부터의 사슴구입 등 자체 통제 활동 실시.

- 서신 및 통신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 농용 안전성(구제역균은 열처리로 사멸되며, 인체에는 감염되지 않음) 등 적극 홍보, 소비둔화 예방.

- 특이상황 발생시 중앙회와 긴밀 협의, 신속 대처체제 구축. **한국양록**